

공·수·주 만점 활약... KIA 루키 김호령

# 턱걸이 입단해 외야 호령

2015 신인드래프트 마지막 10R 지명  
2루수 플라이에도 전력 질주해 선취점  
빠른 발·수비 센스...한달만에 입지 넓혀



“도대체 김호령이 누구냐?”라던 팬들의 1차적인 궁금증은 “오늘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로 심화됐다. 하루 하루가 기대되고, 앞으로의 모습이 궁금한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김호령이다. 김호령은 2015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장 마지막인 10라운드 지명을 받으며 입단한 대졸 신인이다. 입단 순서는 밀렸지만 가장 잘나가는 신인이다.

생각보다 빨리 기회가 왔다. 마무리 캠프에서 김기태 감독이 주목한 외야의 새로운 피였지만 손바닥 부상으로 스프링 캠프 외야 싸움에서 김호령의 이름은 빠져있었다. 그러나 신종길의 부상을 시작으로 김주찬 박준태 김원섭이 외야에서 사라지면 김호령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4월22일 김호령이 처음 자신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겼다. 롯데전 7회 2사 2루에서 처음 타석에 들어선 김호령은 중전안타를 날리며 기다릴 것도 없이 자신의 프로데뷔 첫 안타를 기록했다. 다음날에는 바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첫 선발 출장에 나서 첫 멀티히트도 만들었다. 프로의 높은 벽에 추종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톱톱 공을 때려내며 외야의 지분을 넓혀가고 있다.

사실 김호령의 가장 큰 경쟁력은 수비다. 빠른 발을 바탕으로 한 센스 있는 수비가 그의 장점이다. 딱하는 공 소리가 나기도 전에 발이 움직인다. 빠르게 타구의 궤적을 쫓으며 공을 글러브로 낚아채고 있다. 송구도 시원하다.

여기에 거친 프로 무대의 생존율을 높이는 ‘마이 웨이’ DNA가 있다. 프로 경험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지만 자신의 장점을 활용해 망설임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

김호령은 지난 16일 두산전에서 4회 선두타자로 나와 내야안타로 출루했다. 이어진 좌전 안타 때 넉넉하게 2루로 향한 김호령. 그러나 김호령은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질주를 이어가며 공보다 먼저 3루에 도착했다.

의외의 주루였다. 주변의 반응에 김호령은 “2루 베이스를 밟으면서 보니까 아직 공을 잡지 않고 있었다. 뛰면 살 수 있을 것이지”라고 생각했다며 오히려 고개를 가웃거렸다.

17일에도 김호령은 재치와 빠른 발을 과시했다. 1회 1사에서 우전 안타로 출루한 김호령은 야수 선택으로 1사 만루에서 3루 주자가 됐다. 이범호의 타구가 채 내야를 넘기지 못하고 2루수 오재원에게 잡혔지만, 김호령은 홈으로 뛰어들어 선취점을 만들어냈다.

김호령은 “대학 때 방망이가 느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타격 포인트를 앞에 두려고 한다. 수비는 타자들이 타격하는 것을 보면서 미리 예측하고 있다. 어떤 코스로 공이 들어가고 타격이 이뤄지는 지를 보고 빠르게 스타트를 끊으려고 한다. 프로 첫 해라 공부할 게 많지만 몇 번 상대 타자가 타격하는 것을 보다 보면 머릿속에 대충 그림이 그려진다”고 말했다.

공·수·주에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김호령. 하지만 아직 경험과 노림수가 부족한 신인이다. 김호령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김기태 감독은 “보면 할 때 참 쉽게 치지만 반대로 죽을 때도 쉽게 죽는다”고 웃기도 했다.

매일 접전이 벌어지는 프로의 강행군도 부담이다. 날씨가 더워지면 체력이라는 변수가 김호령을 기다리고 있다.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해 있지만 KIA 외야에서 무력무력 활약을 키워가고 있는 빛나는 루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류 ‘잠시 멈춤’

美 언론 “수술 가능성”...다저스, 오늘 발표

고교때 팔꿈치 수술 이후 11년만...시즌 아웃

결국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수술을 받거나 긴 재활에 돌입한다. 현지 언론의 전망대로 류현진이 수술대에 오른다면 통산 2학년 시절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은 뒤 11년 만에 다시 몸에 칼을 든다. 이번엔 어깨다.

한화 이글스 시절 ‘금강불교’로 불렸던 류현진이지만 가끔 위험 신호가 감지되곤 했다. 2006년 한화에 입단한 류현진은 3년차인 2008년 5월 가벼운 팔꿈치 통증으로 프로 입문 후 처음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그가 한 달 이상 재활을 한 것은 2011년이 처음이었다. 그해 6월말 견갑골(어깨뼈) 염증으로 복잡한 재활 과정을 밟았고 72일 만에 선발 등판하며 재활을 마쳤다. 2012년 6월에 다시 견갑골 통증을 느꼈지만 이때는 14일 만에 1군으로 복귀했다.

미국 진출 첫해인 2013년, 5월 29일 로스앤젤레스전에서 타구에 왼발을 맞아 한 차례 등판을 거르긴 했지만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보냈다. 그해 류현진은 192이닝을 소화했다.

지난해에는 2차례 부상자 명단에 오르고 총 3차례 단기 재활을 했다. 어깨에 위험 신호가 온 것도 이 시기였다. 2014년 4월 28일 콜로라도와 경기에서 어깨 통증을 느꼈고 염증이 발견됐다. 5월 3일 메이저리그 입성 후 처음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5월 22일 메츠전에서 복귀했다.

8월 14일 애틀랜타전에서는 투구 중 오른쪽 엉덩이 근육에 통증을 느껴 자진강판했다. 시즌 두 번째 부상자 명단에 오른 류현진은 9월 1일 샌디에이고와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그러나 9월 13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1이닝 5피안타 4실점하고 마운드를 내려온 뒤, 다시 왼쪽 어깨에 염증이 발견되면서 정규시즌을 조기에 마감했다.

‘200이닝’을 목표로 출발한 2015년, 류현진은 정규시즌에 한 차례도 나서지 못했다. 통증이 스프링캠프부터 그를 괴롭혔고 증상은 예전보다 더 심각했다. 3월 18일 스프링캠프 두 번째 등판에 나선 류현진은 3이닝을 소화하고서 어깨 통증을 느꼈다.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코티손 주사를 맞은 류현진은 3월 MRI(자기공명영상)에선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공을 만질 때마다 다시 뒷걸음질했다.

5월 2일 불펜 피칭을 시작했으나 구속이 82~83마일(시속 132~134km)에 그치면서 다저스 트레이닝 파트의 우려를 샀고 결국 다저스와 류현진은 단기 재활만으로는 어깨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과 미국 프로야구에서 10년을 버티는 동안 류현진의 어깨에는 상당한 피로가 쌓였다. 그리고 고교 시절 이후 가장 긴 재활기를 겪게 됐다. /연합뉴스

## 물오른 ‘Kang’ 미네소타전서 3번째 3안타... 팀은 패

미국프로야구(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가 올 시즌 세 번째 3안타 경기를 펼치고 주전 자리를 굳혀갔다.

강정호는 20일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인터리그 홈 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 1도루로 맹활약했다. 강정호의 분전에도 팀은 5-8로 패했다.

지난 15일 필라델피아전 이후 5경기 연속 선발 출전에 나선 강정호는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이며 벤치의 기대에 부응했다. 3안타를 쳐낸 것은 두 경기만이자 올 시즌 전체로는 세 번째다. 홈에서는 처음이다. 시즌 타율을 0.300에서 0.320(75타수 24안타)으로 끌어올렸고, 올 시즌 10번째 타점을 기록했다.

강정호는 2회말 1사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리키 놀라스코의 초구 낮은 직구(시속 146km)를 밀어쳐 우중간으로 빠져나가는 깨끗한 안타를 쳐냈다. 팀의 첫 안타를 기록한 강정호

는 페드로 알바레스의 중전 안타 때 3루까지 진루한 뒤 대타 호세 타바타의 내야 안타 때 팀에 첫 득점을 안겼다.

5회말 1사 2·3루에서는 유격수 망블로 3루 주자의 득점을 도왔다. 강정호는 7회말 무사 1루에서 미네소타의 두 번째 투수 라이언 프레스리의 시속 150km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깔끔한 좌전 안타로 연결했다.

강정호는 9회말 2사 후 다섯 번째 타석에서 미네소타의 마무리 클렌 퍼킨스의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3루수 옆을 꿰뚫는 좌전 안타를 터트렸다. 이후 무관심 도루로 2루를 밟았으나 알바레스가 루킹 삼진으로 물러나는 바람에 경기는 그대로 끝났다.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3회초 무사 1·3루에서 직접 베이스를 찍고 병살 플레이로 연결했고, 6회초에는 상대 선두타자 웨인 로빈슨의 날카로운 정면 타구를 제2루에서 잡아냈다. 9회에는 3루수로 자리를 옮겨 수비를 소화했다.

/연합뉴스

## ‘프리미어 12’ 개막전 한-일 빅배

야구 세계랭킹 상위 12개국 참여 11월 11일 11시 개막

세계랭킹 상위 12개국에 참가하는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12’의 초대 대회 개막전은 한국과 일본의 대결로 치러진다.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The-K) 호텔에서 열린 프리미어12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조편성과 개막전 대진표를 발표했다.

WBSC 랭킹 8위 한국은 일본(1위), 미국(2위), 도미니카공화국(6위), 베네수엘라(10위), 멕시코(12위)와 B조에 속했다. A조는 대만(4위), 쿠바(3위), 네덜란드(5위), 캐나다(7위), 푸에르토리코(9위), 이탈리아(11위)로 채워졌다. 한국은 오는 11월 8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돔에서 일본과 B조 개막전을 치른다. A조 개막전은 다음날 대만 타이베이 인터컨티넨탈 스타디움에서 네덜란드와 대만의 경기로 열린다. 조별 예선전은 팀당 5경기씩 치르는 풀리그로 치러지고, 각 조 상위 4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8강에서는 A조 1위와 B조 4위, A조 2위와 B조 3위, A조 3위와 B조 2위, A조 4위와 B조 1위가 맞붙는다. 대망의 결승전은 11월 21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다. /연합뉴스